

美의 大中 추가관세 목록... 철강부터 개구리다리까지

6000여개 품목 관세 목록에... 직전 조치의 6배 규모 핸드백·디카·냉장고·삼푸 등 소비재 대거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대중국 추가 관세 목록은 일반 소비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관세 목록에는 핸드백, 디지털카메라, 냉장고, 야구글러브, 삼푸 등의 소비재들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 소비자들 입에 피해를 고

려해 소비재들을 최대한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던 이전 관세 조치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관세 목록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소비재를 제외했다. 중국의 기술 침해 행위를 제재하는 성격이 큰 만큼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 산업기계, 신소재 등 첨단 산업재

를 위주로 관세 명단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된 만큼 공산품에서부터 농축수산물까지 6000여개의 품목이 명단에 올랐다. 이전 관세 부과 대상(1102개 품목)의 6배 수준이다. 의류, 가구, 스포츠 용품, 미용 용품 등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품목이 상당수 목록에 포함됐다. 이런 소비재들을 포함해 전자제품, 섬유제품, 금속제품, 자동차제품,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 다양한 공산품들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정어리, 참치, 대구, 마늘, 양배추, 오렌지, 체리 등 농축수산물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벽돌, 캐비어, 캐비어 대체물, 개구리 다리, 말총, 가발 제조용 사람 머리카락 등도 대상에 올랐다. 개구리 다리 경우 '얼리지 않은 것, 냉장한 것, 얼린 것' 등으로 세분되었기까지 하다. 미국은 연간 대중국 수입 금액의 40%에 달하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데이비드 프렌치 전미소매협회

(National Retail Federation) 부대표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이렇게 광범위한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과 같다"며 "그들이 매일매일 사는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마틴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소비재를 공급하는 나라"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방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전북농협,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전북농협 본부장은 지난 10일 전북팜스테이협의회(회장 최광식)와 함께 농촌 경제활성화를 유도, 전라북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풍납문 광장에서 진행했다. 이날 전북농협 임직원과 전북팜스테이협의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풍납문 광장에서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과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를 홍보하며 팜스테이 팜플렛과 부채를 나눠주고 이번 여름휴가는 농촌을 찾아달라고 홍보했다. '팜스테이'란 농장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팜(farm)'과 머무는 의미의 '스테이(stay)'를 합성한 말로, 농가에서 숙박하며 농촌의 일상을 체험하는 농촌체험 관광마을을 의미한다. 또한 전북에는 17개 전국적으로 230여개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마을마다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지역별 또는 유형별 체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팜스테이 홈페이지(www.famstay.co.kr)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김영태기자

전북은행,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국무총리상 수상 출산 관련 각종 제도 운영·사회공헌 활동 출산과 육아, 가족친화에 기여 공로 인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7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다 양한 출산관련 제도 운영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저출산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 하면 든든 육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전북은행은 출산휴가 및 휴직, 출산 직원이 죽에게 경비 지원 등 출산관련 각종 제도 운영과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 저소득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출산 및 육아, 가족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은행(부행장 진영찬)은 "저출산

롯데백 전주점, 1년에 단 한번 '진도모피 패밀리대전' 할인판매

이달 15일까지... 6층 이벤트 홀 · 3층 본 매장에서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이달 15일까지 6층 이벤트 홀, 3층 본 매장에서 '진도모피 패밀리대전'을 진행한다. 11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시선 집중 1년에 단 한번! 진도모피 패밀리대전'은 '역(逆)시즌' 기획행사로 빙크 재킷, 코트, 베스트 등 인기 이월상품을 정가가 대비 40~70%까지 할인판매, '모피 애호가들의 마음을 뒤흔들 것'이라며 예상 하고 있다. 또한, 진도모피 패밀리대전에는 '진도모피, 엘레, 클레베 브랜드'가 참여, 행사 기간 중 100/200/300/500/1,000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

대상품권 5/10/15/25/50만원, 드리는 시은행사 진행 200/300/400만원 이상 구매 시 빙크울장갑/키링/호리젤린 톱 머플러 등 다양한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여성패션' 관계자는 "뜨거운 한여름, 진행되는 '역(逆)시즌' 모피행사를 통해 협력 회사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의 망설였던 고가의 모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롯데카드 사용으로 200만원 이상 구매 시 3% 추가 할인도 만나 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 10주세 3000만캔 판매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 출시한 필라이트 후레쉬가 출시 72일 만인 지난 6월 3000만(355ml 캔 한키) 판매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초에 5만씩 판매된 필로 지난해 출시 초기 폭발대란을 일으킨 필라이트와 같은 기간 판매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는 계 하이트진로의 실명이다. 필라이트 후레쉬는 흡 배합을 최적화

해 향과 진미를 줄이고 100% 국산 보리를 사용해 포레시 저온숙성공법으로 만든 제품이다. 하이트진로는 청량한 맥주의 수요가 높은 여름 상수를 맞아 필라이트 후레쉬의 기존 생산계획보다 4배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두 제품의 누적 판매량은 이달 중순쯤 3억캔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전북지방우정청·전북도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전북지방우정청은 11일 전북도와 안전, 행복한 전북 만들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지방우정청과 전북도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과 전북도(행정부지사 김송일)가 참석할 가운데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 '우리동네 안전지킴이'는 전북지역 213개우체국 소속 887명의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배달하며, 생활주변 '도로·교량파손, 낙석 붕괴 위험, 위험 건축물' 등 안전위험 요소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서비스다. 전북도는 집배원이 신고하거나 제보

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집배원의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서비스'로 전북지역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도(행정부지사 김송일)은 "앞으로 지역 곳곳의 사정을 잘 아는 집배원들이 마을의 위험하거나 불편한 곳을 꼼꼼히 살피고 알려주는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영태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